

2019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소재와 장르, 시대 배경 등이 매우 다양했으며 특히 이전 까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소재나 인물, 시대를 다룬 작품이 많았던 만큼 향후 각각의 분야에서 흥미로운 결과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각의 영화, 드라마, 출판, 공연, 애니메이션 등 각 분야에서의 장점이 명확히 보이는 만큼 다른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으며 각 분야의 심사위원들의 심사 평가가 한 두 작품으로 몰리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각 작품의 해당 분야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작품을 창작하신 작가님들의 노고를 알기에 최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종심의 심사위원들의 장고 끝에 대상의 영광을 차지한 <석전(石戰)>은 안정적인 플롯을 바탕으로 신선한 소재를 익숙한 주제로 잘 살려낸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으며, 역사적 사실과 판타지를 균형 있게 조합한 스토리텔링 능력이 돋보인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낯설고 상상하기 쉽지 않은 세계를 읽는 이로 하여금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능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필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사업화 작품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게 기대됩니다.

<엘로우 조선>은 시대적 배경을 초월해 ‘언론’이 갖는 가치와 힘을 시의성 있고 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로 풀어내 눈길을 끌었고 뚜렷한 욕망이 교차하는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사건과 갈등이 흥미롭고 입체적이라 향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복(龍福);울릉자산양도감세장>은 개성이 뚜렷하고 다양한 욕망의 캐릭터와 대중적이고 흥미로운 스토리를 잘 조합해낸 작품이었고 특히, 역사적 사실과 작가의 상상력이 잘 어우러져 오락성과 더불어 시장성이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죽음을>은 익숙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읽는 이의 흥미를 계속해서 이끌어내는 구성과 작가의 필력이 돋보였으며 캐릭터에 대한 선명한 묘사가 돋보여 대중적인 장르 문학인 미스터리 스릴러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리>는 익숙한 설화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기에 안정적이고 시의적절한 소재를 다루고 있으며 동양 문화에 기인한 이야기이지만 인류 보편적 정서가 중심이라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에 어필할 수 있는 시장성과 확장성이 강점이었습니다.

<불량도시>는 생경하지만 신선한 소재가 돋보이며 잘못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이 시대에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재발을 막으려 노력하는 주인공들의 활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또한, 반전을 구사하는 전개 방식과 위트 넘치는 대사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조선변호사>는 설정과 플롯이 간결하여 인물들의 상황과 신념들이 잘 드러난 ‘선명함’이 강점이었고 숨겨졌던 역사적 진실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 뿐 아니라 영화 분야로의 확장성 또한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조선사진사>는 사진이 갖는 특별한 가치와 정서를 일제 치하 저항의 시대 위에 세대와 국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호소력 있게 표현하였으며 기획 의도에 충실한 세련된 스토리텔링과 캐릭터들의 선명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특사경, 식약수사팀>은 재기발랄하고 도발적이며 패기마저 가득한 작품으로 사회 메시지 전달 측면을 고려할 때 영화, 드라마, 웹툰 등으로의 확장성이 매우 큰 작품이었습니다.

<한겨울 따뜻한 실내에서>는 특이한 솜씨로 마음과 마음과의 교감, 미세한 삶의 기미들을 읽어내 독자를 끌고 가는 감각과 글재주가 뛰어난 작품이었고 잔잔한 전개이지만 공감과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었습니다.

<잠시, 후>는 아이의 시선을 잘 살린, 기분 좋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기획의도에 충실한 스토리텔링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동화적 상상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 총 12편을 2019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작품의 작가님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아울러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작가님들 또한 향후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의 기쁨을 누리시길 응원 하겠습니다.